

2018년 7월 29일, 제주시 도두1동 이옥선 씨 댁, 이현정 조사.

이옥선(여, 1938년생, 제주시 도두1동)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출생, 20대 초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약 15년간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귀향하여 도두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옛날 일곱 아들을 둔 남선비가 살았다. 흥년이 들자 남선비는 부인에게 육지에 가 무곡 장사를 하여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떠났으나, 노일저대귀일이딸이라는 마음씨 나쁜 여자에게 홀려 체죽이나 받아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 남선비의 부인은 남편을 기다리다 남선비를 찾으러 나섰다가 새를 쫓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남선비와 만났다. 노일저대귀일이딸은 남선비의 부인을 죽인 것도 모자라, 남선비와 함께 돌아와서 일곱 아들마저 간을 내어 죽이려고 한다. 계락을 알게 된 아들들이 노일저대귀일이딸을 잡아 죽이려 하자, 노일저대귀일이딸은 아들들을 피해 도망가다 변소에 목이 걸려 죽고 그곳의 신으로 좌정한다. 노일저대귀일이딸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약 변소에서 기르던 돼지가 병을 앓게되면 노일저대귀일이딸에게 욕을 하며 기원한다.

[조사자] 노일저대귀일이딸 얘기가 해 봅서.

[제보자] 노일저대귀일이딸은 남선비 죽은각시게, 남선비 죽은각시. 남선비가 이제 아덜이 일곱 성젠디. 송년 드난 육지 가그네 무곡이나 허문 육지 강 먹을 걸 헤영 오켄 간 거라이.

육지레 가난 이젠 헤영 오젠 허난. 그놈이 노일저대귀일이딸이 핑계 핑계허멍 뇿이 그 남선비를 얼리운 거라이. 경헤 부난 오지도 가지도 못 헤여네 둥글어 텡기당, 그 여즈허곡 홀리완 이제 살게 뉘난.

큰각시는 막

“이번이나 왔인지사, 들어왔인가?”

헤영 신 신영 강 이레 톨락 저레 이 여, 이 돌러레 톨락. 저 돌러레 톨락, 바당 이서 허단 베런 보난이 신은 몬 떨어지연 아덜덜이 삼아 갓젠 허여 신을. 초신 신을 때난이. 아덜 일곱 성제가 신 삼아당 대민, 또 신영 이레 톨락 저레 톨락. 그 남선비 기다리멍 할망이 하당 보당, 나중에 할망은 죽어분 생이라게, 죽어 부난.

그 노일저대귀일이딸허고 그 하르방허고 육지서 그냥 살아, 오지 안헤영. 경허

면 이제 새덜이 막 왕으네

“조조조조, 조조조조.”

허멍 지장 갈앙 놔두멍 막 먹어가민. 애기덜이

“요 새 저 새 옥은 책허지 말라. 저래 돌아나라. 남선비 옥은 깬에도 체죽단지에 개 ㄷ렸저.”

그 말은 무슨 말이엔 허면, 남선비도 옥은 책 헤 봤자 그 노일저대귀일똥헌티 흘림에 드난. 이제 가지도 오지도 못 해연 이제 먹는 것도 졸바로 얻어 먹지 못 허고, 체죽도 못 얻어먹었젠 그 말이라게. 체죽단지에 개 ㄷ렸저. 개도 체죽을 아이 먹는다, 그 체죽도 못 먹었젠 말해주, 비꼬는 소리라.

경헤연 또시 시민 또 아침이 뒤연 나강 보민

“조조조조, 조조조조.”

허민

“요 새 저 새 옥은 책허지 말라. 휘어이. 남선비 체죽단지에 개 ㄷ렸저.”

경허단 보난 이젠 그 남선비가 노일저대안티 빠정 허난, 아덜덜 잇이난. 이젠 그 아덜덜을 죽여불젠. 남선비 아덜들 일곱 성젤 죽여불젠. 큰각시 죽어부니까 죽은각시 그 노일저대귀일이똥이 이제, 그 아덜덜을 죽여불젠.

아이고, 무신 간을 먹으민. 무신 일곱 ㄹ리 채 먹으민 무신 자기 병이 나으덴 헤영 하민 나중엔 보민 아덜덜 ㄴ 간 내당 주렌 허영 입에 불르멍 지랄허멍. 경 헤여 부난 이젠, 나중에 간은 아덜덜이 알아네. 그 노일저대귀일이똥을 잡아 족 치젠 헤여 가난 돌아난에. 그냥 그 돼지 길릅는 똥 누는 알에 강 목 돌아져 죽어 불엇거든.

경허난 이제 그디 돼지한테 병 나민 빌어. 나 비는 거 받. 헉센도 안허메.

“노일저대귀일이똥 이년, 무불중생도 하나 못 건수허면 너가 똥허러 여기 완 신이 뒤었나.”

허멍 막 욱허멍 빌어. 돼지가 새길 꼬아뉘 불던지 헤여. 경 죽여불민 막 욱허멍 빌어.

심방 왕 비는 거나 봐난. 헉센도 안허여, 어느 신이라도 헉센 허는다. 그거 안 테는 안허여, 노일저대귀일이똥.

- 핵심어: 노일저대귀일이똥(노일저대귀일이똥), 남선비, 체죽단지, 일곱 성제(일곱 형제), 간, 돼지, 새, 아덜(아들)